

뉴스&전광판

※ 2011년 12월 15일 기준

강유택, 신예최강은 바로 나

강유택이 신예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2011년 12월 15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KC&A배 신인왕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강유택 四단이 이동훈 初단에게 347수 만에 백 16집반승을 거두며 지난 1국의 승리에 이어 종합 전적 2-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A·B 두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치른 후 각조 1·2위가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시드를 받아 본선에 직행한 강유택 四단은 B조 1위로 결선에 오른 뒤 결선에서 안국현 三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었다. 이동훈 初단은 예선 3연승에 이어 본선리그에서도 4전 전승을 거둬 조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첫판을 박준석 初단에게 내준 뒤 둘째 판을 승리해 결승에 올랐었다.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올해 5월 입단 이후 단숨에 신인왕전 결승까지 진출해 이목을 집중시킨 이동훈 初단은 98년생으로 한국기원 소속 최연소 프로기사다. 한편 2007년 입단 이후 첫 우승을 기록한 이번 대회에서 7전 전승의 퍼펙트 승률을 보여주며 신예 최강의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한 강유택은 올 4월 제6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에서 이세돌 九단과 인상깊은 쟁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결승3번기에서 선승을 거두며 앞서나가다가 연달아 2패를 당해 우승을 놓쳤었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공동주최하고 KC&A(Korea Chemical&All, 한국종합 무역회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의 우승상금은 700만원이다.



■제1회 KC&A배 신인왕전 본선리그

대국	날짜	승자	패자	결과
제1국	2011.12.12	강유택 ●	이동훈 ○	233수 끝, 흑 불계승
제2국	2011.12.15	강유택 ○	이동훈 ●	347수 끝, 백 16집반승

서능욱, 19년 만의 결승 나들이

'반상의 손오공' 서능욱이 우승 한풀이에 나섰다. 2011년 12월 16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2기 대주배 프로 시니어 최강자전 준결승전에서 서능욱 九단이 서봉수 九단에게 24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동안 40여 년간의 기사생활 동안 조훈현, 서봉수의 그늘에 가려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해 보지 못했던 서능욱 九단이 19년 만에 결승 무대에 이름을 옮김으로써 생애 첫 우승을 노리고 나섰다. 결승전 상대는 조훈현-박영찬 (12월 22일 예정)의 승자로 결승1국은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바둑TV가 주최하고 TM마린이 후원하는 대주배는 만 50세 이상의 기사들이 출전하는 시니어 기전으로 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며 제한시간 15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News & Score Board



여왕 박지은, 국내 무대도 점령할까

세계바둑퀸 박지은이 국수 타이틀을 정조준하며 국내 무대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나섰다. 2011년 12월 13일 한국기원 4층 본선대국실에서 벌어진 제17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준결승에서 박지은 九단이 김미리 二단을 266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두달 전 궁룡산병성배를 우승하며 세계여자최강의 위상을 공고히 한 박지은의 결승 상대는 한달 전 김혜민 六단을 꺾고 결승에 선착한 박지연 二단. 두 사람의 결승 격돌은 이번이 처음이며 상대전적은 박지은이 2승 3패로 약간 밀리고 있다. 2008년 우승 이후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박지은과 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박지연의 결승3번기는 2012년 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선수권전으로 진행되는 여류국수전의 우승상금은 1100만원이며, 제한시간 각자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한국 신예군단,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수 밀려

신예기사들의 실력은 중국이 한수위였다. 2011년 11월 2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제주 퍼시픽 호텔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2011 국제신예바둑대항전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2승 1무를 기록했지만 중국이 총 승수에서 앞서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2라운드까지 각각 일본과 대만에게 승리를 거둔 한국과 중국은 최종 3라운드에서 격돌해 4승 4패로 타이를 이뤘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에 각각 6-2, 7-1로 승리를 거둔 한국에 비해 중국은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각각 7-1, 8-0의 승리를 거두면서 총 승수에서 한국을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3라운드에서 중국에 4승 4패를 기록하며 비겼지만 주장 박정환 九단과 강유택 四단이 각각 리저 六단과 스위에 四단에 패하고 여자기사들끼리의 대결에서도 최정 初단과 김미리 二단이 각각 위치잉 初단과 탕이 二단에 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만과 일본의 3·4위전에서는 대만이 일본을 5-3으로 누르고 3위를 차지하며 더욱 굳건해진 대만 신예바둑의 현주소를 확인시켰다. 반면 각종 세계대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신예대항전에서도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최근 일본바둑계의 쇠락을 그대로 반영해 우려를 자아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참여해 각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인 신예기사들의 기량을 겨루음으로써 향후 세계바둑계의 판도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국제신예대항전은 각국에서 8명(남자6, 여자2)의 대표팀을 구성해 총 3라운드 단체전으로 펼쳐졌다.



GS배 품은 박정환, 한국바둑은 내가 책임진다

제16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시상식이 2011년 12월 20일 매일경제신문사 12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후원사인 GS칼텍스의 허동수 회장과 주최사인 매일경제신문·MBN 장대환 회장이 참석해 우승·준우승을 거둔 박정환·박영훈 九단을 격려했다. 우승한 박정환 九단에게는 7000만원의 우승상금과 상패가, 준우승한 박영훈 九단에게는 1500만원의 준우승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박정환 九단은 지난 10월 19일 막을 내린 제16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5번기 제3국에서 박영훈 九단에게 불계승하며 종합전적 3-0으로 대회 첫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한편 2011년 KBS바둑왕전과 후지쯔배를 우승하고 GS칼텍스배까지 옴켜쥔 박정환은 2011년 한 해 동안 상금 4억원을 돌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박정상·김여원 사랑의 서약



박정상 九단과 김여원 아마6단이 2011년 12월 3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에서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 및 친척들을 비롯해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이창호-이도윤 부부 등 여러 프로 기사들과 바둑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3년여의 열애 끝에 결실을 맺은 박정상 九단과 김여원 아마6단은 그동안 바둑계의 대표적인 선남선녀 커플로 잘 알려져 왔다.

2000년 입단한 박정상 九단은 2006년 19회 후지쯔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 LG배 16강 진출과 한국바둑리그에서 영남일보 선수로 좋은 활약을 펼치는 등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강타자이다.

김여원 아마6단도 여자연구생 1조 출신의 아마강자로 특히 아마바둑보급의 첨병으로 나서 활발한 보급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배윤진, 평생 반려자 만나다

배윤진 三단이 2011년 12월 17일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6층 스텔라하우스에서 박형관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가까운 친지 및 동료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2000년 입단한 배윤진 三단은 그동안 여류명인전과 여류국수전 등 여류기전 본선에서 활약했으며 바둑TV 진행자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근래 몇 년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군부대 바둑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남편인 박형관 씨와의 인연도 이를 통해 이뤄졌다.

제22회 국제아마페어바둑

2011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치요다구 메트로 폴리탄 에드먼드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아마페어바둑에서 한국의 이호승–김희수 페어가 5라운드 전승을 거둬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21개 페어 팀, 일본에서 11개 페어팀이 참가해 스위스리그 5라운드를 치러 우승팀을 가렸다. 한국은 20회 이상한–송예슬 페어, 21회 송홍석–이영주 페어에 이어 이번 이호승–김희수 페어가 우승함으로서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2위는 중학생 선수들로 구성된 쪽핑신–린샤오텅 페어가 호흡을 맞춘 대만팀이 차지했으며 3위와 4위는 일본의 다나카 노부유기–호로모토 노리코 페어, 중국의 리즈차–가오영메이 페어가 각각 차지했다.



제36기 농심새우깡배 아마여류국수전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여성기전인 제36기 농심새우깡배 아마여류국수전이 2011년 12월 10, 11일 이틀간 한국기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의 여성바둑인들이 그동안 갖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수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회는 여류국수부와 일반부A조, 일반부B조, 일반부C조, 학생부, 꿈나무부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최고의 기량을 다투는 여류국수부에서는 현역 연구생 1조인 오유진과 몇 달 전 연구생을 나온 강다정이 결승에서 맞붙어 강다정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대회 4강에서 오유진에게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던 강다정은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승트로피 및 200만원의 우승상금을 받았다. 이외에 일반부 A조에서는 조은설, 일반부 B조에서는 조하니, 일반부 C조에서는 박찬희가 우승을 차지했다. 학생부와 꿈나무부 우승을 차지한 김태원과 이도현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 한국여성바둑연맹이 주관하며 농심이 후원한 제36기 농심새우깡배 아마여류국수전은 국내 아마여성대회 중 가장 전통 깊은 대회이다.

제1기 건국우유 여왕배 여류아마최강전

강다정이 초대 바둑여왕에 등극하며 여성바둑계의 신흥 강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2011년 12월 13일 마포구 서교동 K-바둑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건국우유 여왕배 여류아마최강전 결승3번기 3국에서 강다정이 송예슬을 246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틀 전 열린 농심새우깡배 여류국수전 결승에서도 오유진을 꺾고 우승컵을 안았던 강다정은 이번 우승으로 며칠 사이 여류기전 2연패를 달성하는 경경사를 누렸다.

‘바둑두는 여자가 아름답다’를 모토로 출범한 제1기 건국우유 여왕배 여류아마최강전은 한국여성바둑연맹과 K-바둑이 주최하며 건국유업&햄이 후원한다. 우승상금은 300만원으로 여류아마기전 중 최고의 금액이다.





아마바둑계의 한국리그 ‘2012 내셔널리그’ 출범 임박

2012년 개막 예정인 내셔널바둑리그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2012 내셔널바둑리그 오픈기념경기가 2011년 12월 17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건호 대한바둑협회 회장, 이재윤 수석부회장, 최완식 함양 군수, 함양군 의회 이창구 의장 등이 참석해 내셔널리그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오픈기념경기에는 강원도바둑협회, 고양시 바둑선수단, 광주광역시 무돌, 대구 덕영치과, 서울 건화, 의정부시 바둑선수단, 인천 예몬스가구, 충남 서해바둑단, 충청북도 바둑팀, 함양군 바둑선수단, 경기 안산팀 등 총 11개 팀 80여 명이 참가했다. 내셔널리그 팀의 구성은 만 40세 이상 시니어 선수 1명, 주니어 선수 2명, 여자 선수 1명 등 4명이 기본이고 그 이상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팀의 자유다.

2012년 출범하게 될 내셔널리그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연고 제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구단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아마바둑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1년 고양시장배 전국최강전

‘바둑의 메카’를 꿈꾸는 고양시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마추어 바둑인들의 잔치를 마련했다. 2011년 12월 11일 고양어울림누리 실내체육관에서 2011년 고양 시장배 전국최강전이 열렸다. 대회는 전국최강부 단체전과 고양기우회 단체전, 학생부 개인전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3인 1팀을 이뤄 출전하는 전국최강부 단체전에는 총 1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광주 팀(김남훈, 심재욱, 조민수)이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고양A 팀(이상현, 안병운, 김동섭), 우승·준우승팀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주어졌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바둑선수단을 창단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바둑대회 및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등 바둑에 대한 관심과 지원 면에서 선도적인 도시로, 고양시선수단에 속해 있던 김현찬과 조인선이 올해 일반인입단대회를 통과해 프로가 되는 경사를 안기도 했었다.



■입상자명단

	전국최강부	고양기우회단체전	학생부 (최강부)	학생부 (백두부)	학생부 (한라부)
우승	광주팀(심재욱, 조민수, 김남훈)	꽃마을팀(김영칠, 류영준, 신용표)	우영준	유지현	김태주
준우승	고양A팀(안병운, 김동섭, 이상현)	빈삼각팀(윤창식, 박영규, 신경주)	조종신	김성현	정상우
공동3위	서산팀(유경남, 김수영, 유병용) 안양팀(최호철, 류승희, 최인혁)	행주산성팀(최성신, 박선규, 장양운) 백마팀(임춘기, 김동성, 이준호)	이운찬 허서현	엄상호 조영재	윤세원 윤현섭

제29회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

국내 유일의 아마추어 초청대회인 제29회 덕영배 전국아마대왕전이 2011년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대구 중구 덕영치과병원에서 열렸다. 덕영치과병원(원장 이재윤)이 후원하는 전국아마대왕전은 대한바둑협회 아마랭킹 상위 64명을 초청해 시니어부, 주니어부로 나눠 각 부별 우승자를 가린 후 통합결승을 치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통합결승에서는 주니어부 우승자 조광희 아마6단이 시니어부 우승자 심재욱 아마6단을 꺾고 전국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부터 여성 상위 랭커 8명을 초청해 진행한 여성부에서는 송예슬 아마6단이 김신영 아마6단을 꺾고 우승,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현 대구바둑협회 회장이자 대구 덕영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윤 원장은 매년 덕영배를 후원·개최해 신구 아마바둑인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데 감초 역할을 하고 있는 바둑애호가이다.

제1회 양구군수배 국민생활체육 민군관 바둑대회

제1회 양구군수배 국민생활체육 민군관 바둑대회가 2011년 12월 17일 양구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 개회식에는 전창범 양구군수와 박승용 양구군의장, 윤기복 양구군바둑연합회장 등 양구군의 주요 인사들이 자리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5인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 부문에는 병영부가 별도로 만들어져 인근 군(軍)부대의 장교와 장병 1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평소 바둑에 관심이 많은 육군 제21사단 63연대장(한영훈 대령)이 부대원들과 함께 5인단체전 병영부에 참가해 바둑을 통한 부대원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대회 심판위원장 및 심판으로 참석한 윤현석·이성재 九단과 김수진 三단은 지도다면기 및 장병을 대상으로 특강을 벌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높였다.

■ 입상자명단

단체전	일반부			병영부
우승	사랑의 교회팀(임재순, 임철호, 최상철, 최봉환, 이병하)			육군 제21사단 63연대
개인전	최강부	고급부	중급부	병영부
우승	전성길	조경호	박대진	오치민(우승), 안훈(준우승), 이상영(3위)

제6회 덕수고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

2011년 11월 26일 종로3가에 위치한 종로기원에서 제6회 총동창회장배(총동창회장 편호법 58회) 바둑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덕수고등학교 바둑모임(덕기회, 회장 최용일, 60회)에서 주최한 이 날 대회에는 총 80여명이 참가해 A, B, C, D 4개조로 나뉘어 경합을 벌였다. 대회 종료 후에는 각 조 5명씩의 입상자에게 푸짐한 상품이 수여됐으며, A조 남도식(67회), B조 정희석(72회), C조 이재웅(52회), D조 권경산(68회) 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덕수고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2006년 덕기회가 창립된 이후 매년 봄에는 단체전, 가을에는 개인전으로 대회를 개최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1년에는 YES24 주최 고교동문전 8강에 올라가 상위 입상을 노리고 있으며, 동문들의 바둑에 대한 열의를 반영하여 모교에 바둑부가 설립되어 2011년에 처음으로 프로기사(김채영, 여, 고1)를 배출한 바 있다.